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 반려동물 양육비율 29.2%, 월평균 양육비 약 12만 1천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이하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93.2%)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동물병원 서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양육가구 비율, 반려동물 종류 및 양육 기간, 양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이웃집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려동물 양육이 특정 계층이나 일부 가구의 선택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14.4%)가 뒤를 이어, 반려견 중심의 양육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 1천(병원비 3만 7천원)으로, 병원비 중 사고·상해·질병 치료 비용은 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의 양육비용(13만 5천원)이 고양이(9만 2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는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인식과 책임 의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이다. '25년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라 반려인(90.2%), 비반려인(68.9%) 간 인지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인 제도 인식 수준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동물보호법 인지도(%) : ('21) 63.3 → ('22) 66.5 → ('23) 71.8 → ('24) 75.4 → ('25) 74.9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와 같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8.8%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인식 정도와 비교하면 실제 실천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반려인(86.9%)과 비반려인(39.9%) 간 인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 준수(%) : (21) 37.8 → (22) 43.2 → (23) 44.3 → (24) 45.6 → (25) 48.8

②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93.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려인(94.3%)과 비반려인(92.7%) 간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았다.

* 동물학대범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찬성(%) : (23) 89.7 → (24) 87.8 → (25) 93.2

③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유료·무료)이 46.0%로 가장 많았고, 펫숍에서 구입함(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9.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였으며, 입양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은 ‘시간적 여유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반려동물 관리 자신 부족’(16.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이 정서적 선택을 넘어 시간·비용·책임을 동반한 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88.3%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수용성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④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용업체’(50.8%), ‘놀이터’(35.5%), ‘호텔’(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물병원 이용경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 : (21) 73.0 → (22) 71.8 → (23) 80.4 → (24) 93.0 → (25) 95.1

한편,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와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는 모집단과 조사 방법이 다른 조사로, 두 조사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 / 3,000가구 대상 조사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 설문지 활용 온라인조사 방식 / 5,000명 대상 조사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양육현황’이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반려동물 양육 현황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전체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의 ‘알림자료’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kosis.kr)’의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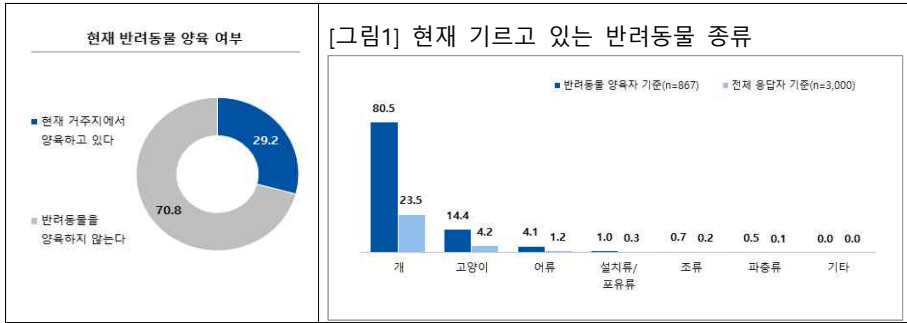
붙임.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결과 요약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차희수 (044-201-2616)

붙임 조사 결과 요약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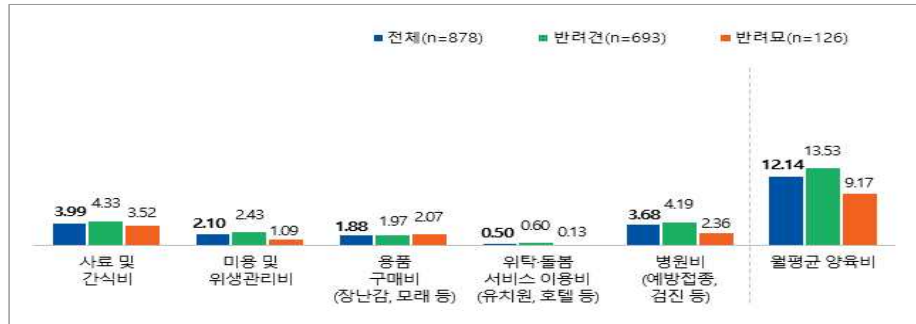
- 현재 반려동물 양육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2%**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고 있다'고 응답
 -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개'가 **8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이'(14.4%), '어류'(4.1%) 순(중복응답)



[기준: 전체 응답자 및 반려동물 양육자, 단위: %]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2.14만 원**으로 나타남
 - 이 중 병원비는 3.68만원(사고·상해·질병 비용 포함), 사료 및 간식비는 3.99만원, 미용 및 위생관리비는 2.10만원 수준

[그림2] 반려동물 양육비용(사고·상해·질병 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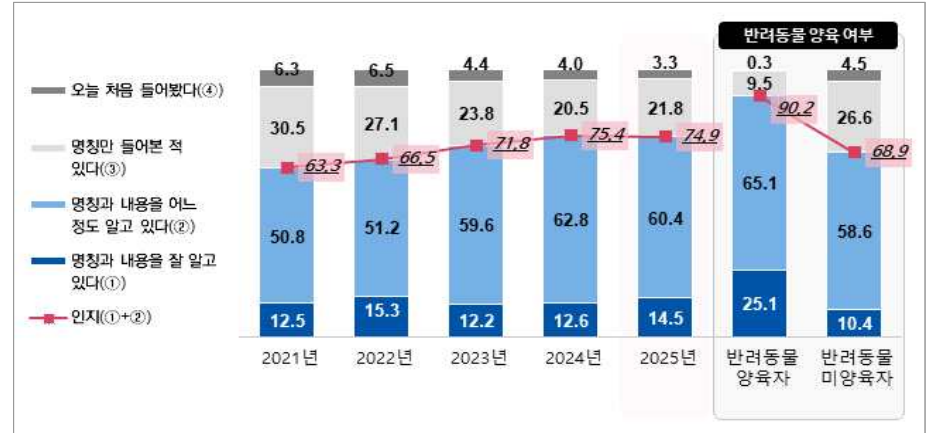
[기준: 반려동물 양육자(n=878), 단위: %]

* 병원비는 정기 진료비와 사고·상해·질병 치료비를 포함한 값으로, 사고·상해·질병 치료비는 연간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함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74.9%**
 - '반려동물 양육자'는 90.2%, '반려동물 미양육자'는 68.9%가 인지

[그림3] 동물보호법 인지도



[기준: 전체 응답자, 단위: %]

-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대해, '준수하고 있다'는 **48.8%**로 나타남
 - '반려견 양육자'는 86.9%, '반려견 미양육자'는 39.9%로 나타남

[그림4]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준수 정도(전체)



[기준: 전체 응답자, 단위: %]

□ 동물학대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를 '찬성한다'는 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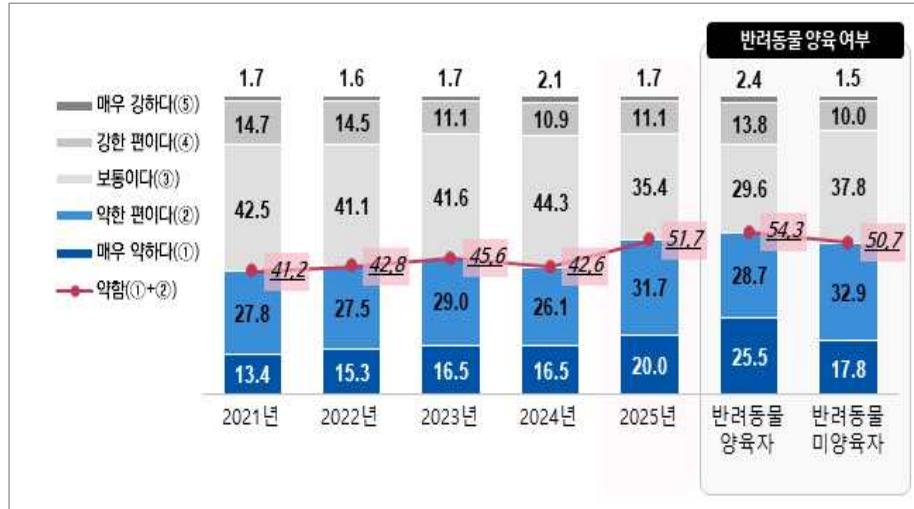
[그림5] 동물학대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찬성 여부



[기준: 전체 응답자, 단위: %]

□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 51.7%, '강하다' 1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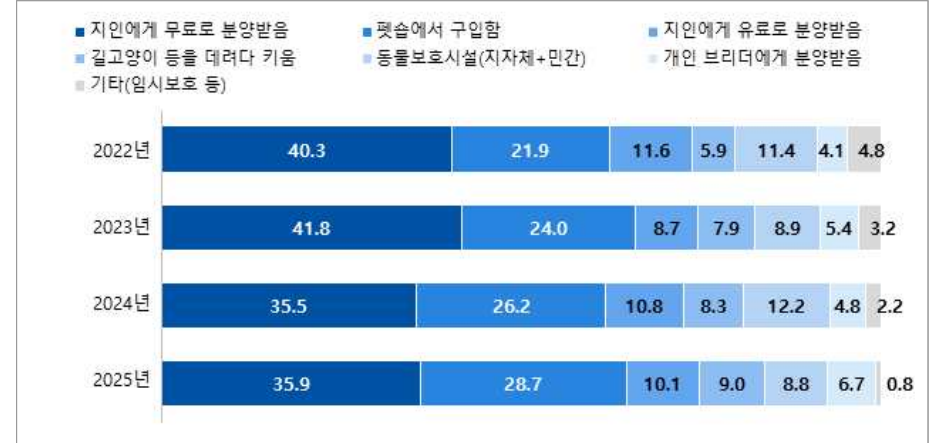
[그림6] 동물학대 시 처벌 수준



[기준: 전체 응답자, 단위: %]

□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유·무료로 분양받음'이 46.0%, '펫숍 구입'(28.7%), '길고양이 등 데려다 키움'(9.0%)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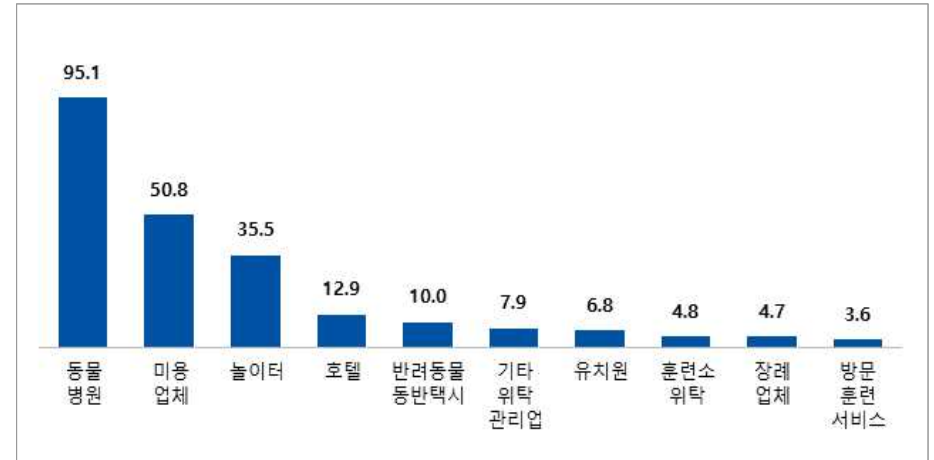
[그림7] 반려동물 입양 경로



[기준: 반려동물 양육자, 단위: %]

□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95.1%, '미용업체'(50.8%), '놀이터'(35.5%) 등의 순

[그림8]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경험 (중복응답)



[기준: 반려견/반려묘 양육자, 단위: %]